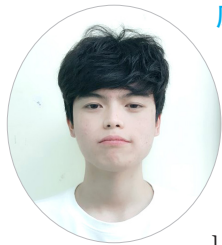


의 傳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샤디 : 알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자를 봤을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해 긴장한 적도 있습니다.

홍한 : 그것은 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 따라서 언어도 다른데 모든 언어가 한자로부터 생긴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어렵다고 봅니다.

金暲知 : 그렇다면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줄 때 한자 수업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배우는 것이 좋을까요, 기존의 한국어 수업시간에 한자를 함께 가르쳐주는 것이 좋을까요?



康榮杰 : 저는 한국어 수업시간에 한자를 가르쳐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공부할 때 한자를 조금이라도 가르쳐주면 한국어를 발음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카잉진민 : 한자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배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휘 실력을 높이는 데 더 效果의 일 것 같습니다.

우린철명 : 저는 한국어를 배울 때 한자 수업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배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샤디 : 제 생각에는 발음과 한자공부를 위해 따로 수업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시간에 문법과 단어에만 집중하다 보니 한자나 발음을 잘못 배워서 한자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합니다.

홍한 : 제 생각에는 따로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배우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金暲知 : 앞으로 여러분의 계획과 이루고자 하는 꿈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康榮杰 : 저는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졸업한 후에는 중국으로 돌아가서 컴퓨터 기술 관련 회사에 취직하려고 합니다.

카잉진민 : 저는 세계여행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배우면서 通譯역도 할 계획입니다.

우린철명 : 저는 어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TOPIK 6급을 받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獎學金을 받고 입학하고 싶습니다.

샤디 : 저는 TOPIK 6급을 받은 후에 대학교에 입학하여 자동차디자인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마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홍한 : 지금은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처럼 말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한 후에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습니다. (語文)



座談을 마친 (左부터) 우린철명, 홍한, 金暲知, 카잉진민, 샤디, 康榮杰

학생을 위한 通通漢 漢字教育

本誌는 漢字教育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전국의 한자교육 現場을 探訪해 소개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방문한 全羅北道 井邑 培英中學校는 학교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어 '通通漢' 한자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金亨植 校長

金東鉉(本會 編輯人-이하 金東鉉)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읍 배영중학교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金亨植(井邑 培英中學校 校長-이하 金亨植):

우리 학교는 1949년 개교하여 '自立'이라는 건학이념을 기반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참여하고 소외되는 학생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교과별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과 활동 이외에도 아이들이 배우고 싶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자율동아리'를 운영하여 스포츠 클라이밍, 작곡, 승마, 요리 등 아이들의 원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학적 소양을 위한 문학 체험의 날, 師弟同行 자유여행, 듣기·집중력 훈련, 고전 읽고 쓰기 시간, 5급 한자 급수 도전을 위한 통통한(通通漢) 시간 등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金東鉉: 교장 선생님의 教育觀이 궁금합니다.

金亨植: 제가 생각하기에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自立'을 기반으로 한 기초·기본 역량 교육입니다. 그래서 기초체력 증진교육, 마음의 큰 향아리를 만드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自我尊重感 형성의 일환으로 학생 참여중심 수업, 교육적인 변화 및 학력신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金東鉉: 배영중학교의 특별한 한자교육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金亨植: 한자·한문이 학습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학 시간에 수업 참관을 한 적이 있는데 '密度'를 한자로 설명하니 학생들도 잘 알아듣더라고요.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한자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자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계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학년 같은 경우에 '고전 읽고 쓰기' 시간을 주 2회 실시합니다. 한문하고 고전은 연관이 크기 때문에 교재를 明心寶鑑(명심보감)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매년 11월에 3학년 학생 전체가 한국어문회의 한자급수시험을 봅니다.

金東鉉: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金亨植: 본교 재학생 422명 중 84명은 한부모 가정,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의 학생입니다. 우리 학교는 모든 재학생들이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학생들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재



수업시간



鄭鐘洙 教師

金東鉉 : 선생님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鄭鐘洙(井邑 培英中學校 教師-이하 鄭鐘洙) : 저는 배영중학교에서 5년째 한문을 가르치고 있는 한문교사 정중수입니다.

金東鉉 : 현재 진행하고 계신 한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鄭鐘洙 : 아이들에게 바른 단어, 바른 한자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하여 ‘通通漢(너와 내가 소통하여 하나로 통하는 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주 쉬운 한자부터 중학생이 꼭 익혀야 할 기초한자 900字를 바탕으로 여러 용례를 넣어 자체적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주 금요일 7~8교시 중에 여유가 되는 시간에 담임선생님 지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동기 부여 차원으로 한국어문화의 한자급수를 취득하게 하여 아이들이 한자에 더 친숙해지고 성취감도 느끼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東鉉 : 배영중학교의 한자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鄭鐘洙 : 중학교에 처음 올라와 한자를 접하다 보니 한자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아이도 있었고, 대다수가 매우 어려워하였습니다. 초반에 1년 동안 누구나 최소한 자기가 목표로 하는 급수를 취득하자고 다짐을 했습니다. 어려워도 ‘이번

달에는 여기까지 해보자’라는 목표를 정해서 자율적으로 실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난 시점에서 보니 아이들이 이제는 한자를 읽을 수 있고,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金東鉉 : 선생님만의 漢字教授法이 있으신가요?

鄭鐘洙 : 한문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이 ‘한자는 어려운 것’, ‘한자는 외워야 하는 것’이라는 固定觀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로 한자어의 뜻을 풀이하면서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고, 평소 자주 쓰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JTBC의 앵커브리핑 등 미디어에서 활용되는 한자어의 뜻을 이해시켜주면서 암기보다 이해에 주안점을 두고 수업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학습하면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모든 교과목의 개념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자어의 명확한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金東鉉 :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한자(어) 교육의 한계,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鄭鐘洙 : 한자공부가 ‘一回性’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학교 교육에서 잠깐 배우고 다시는 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자어를 平生 驅使(구사)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주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되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인식 역시 암기 과목으로 치부되다 보니 배우는 즐거움보다 시험점수와 결부시켜 생각하는 점이 아쉽습니다. 시험 당시에만 암기하는 식의

공부법이 아쉬운 현실입니다.

金東鉉 : 한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鄭鐘洙 : 좁은 의미에서는 한자 자체를 읽고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聖賢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전수 받고 바른 인성을 涵養(함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옛 문헌에 나와 있는 성현들의 생각, 가치관 등이 옳은 것인지, 지금 시대와 맞는 것인지 등을 아이들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金東鉉 : 한자교육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鄭鐘洙 : 아이들이 한자에 흥미를 갖고 곳곳에 있는 한자를 발견하면 그것을 찍어서 아이들끼리 유추하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모르는 한자를 알아가려고 스스로 노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金東鉉 :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鄭鐘洙 : 단기적으로는 아이들이 11월에 있을 급수시험에서 원하는 급수를 취득했으면 좋겠고, 교사로서는 학생들이 한자를 좋아할 수 있게 더 열심히, 더 발전하는,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朴世諫 學生

金東鉉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朴世諫(井邑 培英中學校 學生-이하 朴世諫)

하 朴世諫 : 저는 배영중학교 3학년 박태겸입니다.

金東鉉 : 언제부터 한자 공부를 시작했나요?

朴世諫 : 초등학교 1학년 때 『魔法千字文(마법천자문)』이라는 만화책을 보면서 한자를 스스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만화책을 보면서 한자를 더 알고 싶어서 공부하다 보니 3급 정도의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金東鉉 : 한자가 타고과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朴世諫 : 독서를 즐겨하지 않지만 책을 읽을 때 분명 도움이 되었고, 영어로 된 책을 읽을 때 단어를 쉽게 이해해서 적절한 단어를 선택하여 쉽게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金東鉉 : 한자를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朴世諫 : 초등학교 때 공부한 이후로 공부한 적이 없어서 그 空白(공백)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또, 한자를 공부하는 것이 싫지는 않지만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할 것이 많아서 시간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金東鉉 :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朴世諫 : 눈과 손이 한자에 익숙해질 때까지 매일매일 책을 반복해서 읽고 썼습니다.

金東鉉 : 앞으로의 꿈은 무엇인가요?

朴世諫 : ‘친애하는 판사님께’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判事(판사)라는 직업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語文)

